

지역 소식통

부안군, 도로 일제 정비

부안군은 설명절 귀성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포트를 등 노면 불량구간에 대해 긴급 정비에 나섰다.

지난 겨울 수차래 폭설과 한파로 인해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도로파임 현상)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파손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포트홀은 포타아스콘을 활용하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등의 파손된 구간을 우선 보수하고, 파손이 심하게 공사가 필요한 구간은 별도로 전면 재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훼손된 중앙분리대와 규제봉 정비, 도로표지판등을 제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건설교통과는 설명절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도로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싱크홀, 포트홀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해 안전하고 즐거운 설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18일까지

정읍시가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은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도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만 12세부터 64세 저소득 장애인이며, 올해 8월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치유문화도시 고창' 총력

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시민기획단 운영, 치유 공동체 발굴·육성 등

'법정 문화도시'를 향해 가는 전북 고창군이 올해 사람과 자연, 문화·예술로 위로받는 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향에 나섰다.

2일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치유문화도시' 등 올해 중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문화백신'이 되겠다는 목표로 다채로운 사업을 펼친다.

먼저, 치유문화도시를 이루는 3주체(사람, 공동체, 자연·생태)의 어울림에 중점을 둔다.

고창군의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시민기획단'이 본격 운영된다. 기획단에선 공유강좌, 인택트 치유포럼, 플리마켓, 음식나눔 행사 등 고창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홍보·진행하게 된다. 또 '전문문화기획자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의 공간을 살펴보고 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보는 사업도 준비되고 있다.

고창의 수준높은 치유 공동체를 적극 발굴·육성한다. 고창에선 해마다 마을굿을 하며 공동체를 치유해 가고 있는 성송면 양사마을을 비롯해 책마을 해리, 책이있는 풍경, 아산 허브마을, 치유농업연구소 등 성공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힘들어진 가운데 '우리할매 유튜브 라이브방송(가제)' 등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고창은 세계 최고의 게르마늄 온천인 석정온천지구와 방장산·문수산 중심지로 힐링인프라, 생활권보전지역과 관련한 생태체험 휴식과 교육공간이 마련돼 있다. 또 운곡습지, 선운산, 고창읍성 맹종축립 등 자연·생태공간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진초록 숲



고창군은 남녀노소가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홍보·진행하는 '문화도시 시민기획단'을 운영 한다. 사진은 고창한달살기 원데이클래스.

길을 걸으면서 심신과 마음이 이내 평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재단은 마음치유길 코스를 만들고 숲속명상의장 등을 꾸민다. 엄마와 아이는 햇살이 드는 따뜻한 흙과 수분을 머금어 차갑고 질척한 흙, 솔잎과 잔물이 깔린 숲을 걸으며 자연이 주는 행복감을 진득 만끽할 수 있는 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외부의 시선으로 새로운 지역의 모습을 찾기 위한 '고창스테이 프로젝트'도 관심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문화예술인 대상 '마을 한 달 살기'와 일반인 대상 '고창 여행하기' 등이 코로나19시대에 맞춰 새롭게 다가갈 예정이다.

재단의 중요역할인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운영'과 청년 예술가의 지역 문화예술계 안착을 위한 '지역 청년예술가 캠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고창읍성 체험거리 조성'과 '고창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이촌뉴딜 300사업' 등과 협업체 지역 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 강화와 지역문화에순환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간창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정만기 수석이사 "문화재단 출범 2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향후 재단의 질적·양적 성장 가능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는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성 기자

설 명절 가격표시이행 점검

부안군, 14일까지 물가지도·점검반 구성 집중 단속

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부터 14일까지 명절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모니터링 및 가격표시제이행 점검을 통해 서민물가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관련부서 합동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를 접수하며 물가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현장지도 한다.

특히 농·축·임·수산물 16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성수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한다는 방침이며, 상점가, 전통시장내 소매점포 등에 대해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단속은 가급적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 명절 성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자칫 명절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내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신청

정읍시는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농림축산 식품 산림소득증대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산림소득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업인의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산림소득사업은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2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임산물 상품화

사업(포장박스 등 지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비료 등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재배시설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이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임산물에 해당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립가·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업인 등은 가까운 읍·면·동에 사업신청서와 산림소득사업 지침에 따른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견적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설 명절을 맞아 고창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는 발길!! 지역경제 살리는 귀한 손길!!'이라는 캠페인과 함께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인규 의장과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창전통시장을 방문해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생산, 야채, 과일 등을 직접 구입하며 명절 물가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최인규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끝이 안 보이는 경기침체와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상권이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정읍시, '2022년도 농림축산 식품 사업' 신청 접수

15일까지 7개 분야 129개 사업

정읍시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정부 지원 사업인 '2022년도 농림축산 식품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 식품 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신청 분야는 농업, 농촌, 식량, 축산, 식품, 유통 원예, 산림 등

7개 분야 129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업인·생산자단체·농림축산 식품 관련 사업종사자 등으로 지난해 28일 신청요령 등에 대한 공고와 함께 신청을 받아 이달 1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분야별 지원 자격과 요건을 자세히 확인 후 분야별 관련 부서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업성 검토 등을 심사 후 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3월 초 전북도에 신청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구성해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3월 초에 전북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가능하며, 농림사업 정보시스템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112' reporting crimes.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text explaining the benefits of reporting crimes, such as receiving protection for victims and reporting on offenders. It includes a phone number (112) and a website (www.112.go.kr).